



112신고 출동 자치경찰, 현장서 직접 조치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 112신고처리 업무 개선 협약
국가·자치간 ‘중복 출동’ 개선… 현행법 체포 등 가능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의 업무분담이 ‘신고 내용’ 만으로 나뉘지면서 오히려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안이 마련됐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7일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협약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자치경찰이 자치지구대·파출소를 운영해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이 출동한 이후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치경찰이 새롭게 이관된 업무 (주취자·보호조치·교통불편·분실습득 등 12종)와 관련해 112신고로 출동을 했는데, 흥기 난동이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경찰이 추가로 출동해야해 초기 대응 및 범인 검거, 수사 등에 지장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으로 112신고 전담 사무와 관계없이 출동지령을 받은 기관에서 현장에 출동,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자치경찰이 출동한 사건의 경우에도 기존 국가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 체포 등 초동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 수사 및 현행법 인계 등 후속 조치는 국가경찰이 전담한다.

다만 긴급체포와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과 감시 등 현장수사 활동이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은 자치경찰이 출동하더라도 현장에서 국가경찰에 인계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자치경찰의 현장대응력이 한층 강화돼 제주 치안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자치경찰 확대 3단계’가 시범 운영돼 국가경찰 260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돼 있는 상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119구급대원 폭행 50대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제주에서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에 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고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전화로 복통을 호소하며 119구급대의 출동을 요청했다. 이후 119구급차를 타고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고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원동기자전거 몰고 가다
행인치고 도주 30대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사람을 쳐 도주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1시 59분쯤 서귀포시 올레시장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행인 A(64·여)씨를 쳐놓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무 파종하는 농부들 지난날 31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밭에서 농부들이 무 파종 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상국수습기자

고유정 사건 유족, 결국 ‘시신 없는 장례’ 치러

머리카락 8가닥으로 진행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제주 고유정 사건’ 발생이 100일 넘게 지났지만, 정작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지난달 30일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고유정의 전 남편인 강모(36)씨에 대한 장례가 같은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강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고씨에 의해 살해된 이후 현재까지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장례식에는 강씨가 평소 쓰던 모자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8가닥과 양복 한 벌을 갖고 치러졌다. 유족 측이 “고인을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서 취재진 등이 물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지난 7월 15일 취임한 장원석 제주동부경찰서장이 방문해 “시신 수색에 기한을 두지 않고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은 9월 2일 불교식으로 치를

예정이다. 일반 화장터에서는 시신이 없으면 화장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족들은 봉안탑을 따로 마련했는데, 추후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 화장해 이 곳에 봉안하기 위함이다.

유족 측은 “장례에 학교 선후배 및 지인 등이 참석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수 있었다”며 “고인의 유해가 하루빨리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편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은 2일 2번째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4·3희생자 14명·유족 1748명 인정 의결

제주4·3 실무위원회 심사
중앙위에 심의·결정 요청

4·3 희생자 14명과 유족 1748명이 추가로 인정, 의결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0차 회의를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4·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769명(희생자 14, 유족 1755명)에 대해 심사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748명은 인정 의결하고 유족 7명은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14명으로 사망자 8명, 행방불명자 5명, 수형자 1명이다. 이 중에는

군사재판 수형인 3명(행방불명 2, 수형자 1)도 포함됐다. 유족 불인정자 7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와 4·3특별법의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만 1392명 중 1만7037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으며, 인정률은 79.6%이다.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3차례 심사를 통해 총 1만7037명(희생자 292 유족 1만 6745)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87차 제주4·3중앙소위원회 개최 결과도 공유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해상서 익수사고 잇따라… 2명 사상

제주에서 익수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30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제주시 화북포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K호(7.31t) 선장이 포구 앞 2~3m 해상에 떠 있는 A(86)씨를 발견하고 인근 주민과 함께 인양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앞서 29일 밤 11시 5분쯤에는 제주시 탐동 라마다호텔 주변을 산책하던

행인이 바다로 들어가던 B(63)씨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제주파출소와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익수자 B씨를 구조하고 응급조치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으나 폐렴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2건의 익수사건에 대해 목격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70년만에 北동생 만났던
강정옥 할머니 별세



지난해 100살의 나이를 무릅쓰고 북한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간 강정옥(사진)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

년 101세다.

1일 강정옥 할머니의 유족에 따르면 강 할머니는 이날 오전 1시7분쯤 제주시 애월읍 남읍리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강 할머니는 지난해 8월 24일부

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제21차 남북 아산가족상봉’에 참여해 북한에 있는 여동생 강경화(86)씨를 70년 만에 만났다. 당시 참가자 가운데 최고령자였다.

강씨자매는 1948년 동생인 강정화씨가 육지에 있는 방직공장 취직을 하면서 헤어졌다. 육지로 올라간 이후 강씨는 제주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소식을 전하려 했지만, 4·3의 광풍이 몰아닥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6·25전쟁이 터져 아예 연락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강 할머니의 자녀는 “어머니가 죽기 전에 동생을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제주 최대 편백 숲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 흑염소 먹이주기 (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래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 편백숲길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흑염소탕 / 전골

수육 / 육회

술불구이 / 떡갈비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764.6678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

T. 064.805.5099